



## 김록권 의무사령관

“이번 3성 장군 진급은 군의료를 제대로 만들어 보라는 국가의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소명을 받들어 나갈 것입니다”

“군의료에 몸담고 있는 군의관들은 별개의 집단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의 한 부분이며 동료들인 것입니다.”

“제가 가톨릭의대 재학 당시 저의 집에서 3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요.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등록 때가 되면 학자금 마련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시며 은행 대출 보증을 서 줄 분들을 만나시는 것이 있었지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군 위탁 장학생’ 이었고, 본과 1학년 때부터 이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7년을 근무했습니다. 복무기간이 지나 전역할 기회가 있었지만 86년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군 선교를 목적으로 장기근무를 지원하게 되었지요. 당시 부모님은 물론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가 많이 걱정을 해주셨지만 나의 마음이 확고하였기에 아무런 망설임없이 군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인을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국 군의무사령관 김록권’은 지난 12월1일 마침내 의사로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3성 장군의 꿈을 이루었다. 김 장군은 지난 80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중위로 군의관으로서의 군 생활을 시작하여 90년 처음으로 국군현리병원장을 맡았고 이후 2005년 의무병과 최고직인 의무사령관에 취임하기까지 여섯 번에 걸친 군병원장과 군의학교장, 육군본부 의무감 등 군의료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두루 역임했다.

“삼성장군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요. 80년대 초 의무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3성 장군을 목표로 한 선배의사들이 여러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번번히 그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 저의 3성 장군 진급도 의무분야에서가 아니라 군 의료의 발전을 염원하는 국방부 내부에서 제기된 사안이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 경우 3성 장군 진급은 선물을 받은 것이지 결코 쟁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저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군 의료를 제대로 만들어 보라는 국가의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제 자신의 주어진 임기 동안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 장군의 이야기로는 자신이 3성 장군에 진급함으로써 앞으로 현재 4명인 의무분야 장군이 10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방부 내에 의무분부를 신설하여 국군 의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고, 군 의무조직을 의무작전사와 의무행정사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병원과 야전 의무체계의 단일화 및 전문화를 통해 의무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국군중앙의료원을 설립하며, 군의관의 지속적인 획득을 위해 자체 군의관 양성기관도 세울 계획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군만으로는 병사들의 의료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



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수월치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열의와 성실한 자세로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 국군의무사령부는 군민협력체계의 일환으로 전국의 58개 대형병원들과 협진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여러 의과대학의 교수 1백48명을 의무자문관으로 위촉해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군 내부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진료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출신학교·고실 등의 문제로 인해 의무자문관과 군의관과의 협력관계도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김 장군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그런가하면 군의관들의 대부분이 대학 졸업 또는 전문의 취득 직후 입대하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적어 전반적으로 진료수준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군내 환자들이 일반 민간병원으로 전원하여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군에서 군의무의 특성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 큼니다. 간혹 몸이 아픈 병사가 진료를 받기 위해 의무대나 군병원을 찾았을 때 군의관을 만날 수 없었다는 불만을 털어 놓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지만 군의관들 역시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료와 관계없는 업무를 보느라 환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군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져 군의관은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도 이미 보고한 군의무발전방안에 대해 우선 군 내부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해 제가 의무사령관에 취임할 당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 군대 내 의사 특히 제 경우 ‘참 외롭다’는 느낌이 그렇게 절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선배와 후배들이 여러 민간의료기관에 있었지만 어느 한사람 관심이나 따뜻한 위로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군의료 부문에 몸담고 있는 우리 군의관들이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의 한 부분이며 동료들이라는 점입니다.”

김 장군은 이렇듯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 왔고, 또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군의료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의료계의 인식전환을 위해 의무사령관 취임 이후 그 누구보다도 병원협회나 의사협회 회무에 적극 참여 하는 등 민간의료와 군의료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대담 김성환) **KHA**